

메우고 때워도 '금새'...포트홀 시민 불편·지자체 골머리

올 들어 최근까지 1만7천여건 보수...사고는 2천여건 접수 "빠진 곳 또 빠져" 하소연...市 "복구 위치 기록, 체계적 관리"

"한 번 빠졌던 곳에 또 빠지다 보니 복구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네요." 포트홀이 주로 발생하는 겨울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도심 곳곳은 여전히 '지뢰밭'이라 시민들은 불편을, 행정 당국은 처리 및 복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1일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포트홀 1만7천여개를 보수했다. 포트홀(Pot Hole)은 겨울철 제설 목적으로 도로에 뿌려진 염화칼슘 등에 의해 도로면이 부식(腐蝕)되는 가운데 그 위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생긴 압력

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도로 위 구멍에 차량 바퀴가 빠질 경우 타이어 및 휠 손상은 물론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광주에서는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2천500여 건 발생했으며, 광주시는 구멍의 크기 및 깊이에 관계없이 도로의 성분과 유사한 아스콘(아스팔트)으로 메우고 있다. 문제는 메꾸기 바쁘게 포트홀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금남로 공원으로 향하는 2차선 도로 위엔 서로 다른 크기의 포트홀이 50cm에서 1m 간격으로 산재해 있었다. 차선 가운데 생긴 포트홀의 경우 차량 주행에 큰 장애물이 되지 않았지만, 바퀴가 지나가는 부분에 생긴 구멍은 여지없이 차체를 흔들리게 만들었다. 앞 차량이 포트홀에 빠져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뒤에 가던 한 차량은 오른쪽 차선을 살짝 넘어 지나가려다가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와 충돌할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됐다. 이곳 도로로 출·퇴근한다는 장모(32)씨는 "겨울도 아닌데 지날 때마다 바퀴가 포트홀에 걸린다"며 "한 번 빠졌던 곳에 계속 빠지다 보니 복구를 안하는 건지, 해도 금방 다시 생기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구 양동 돌고개역 일원 삼거리에서도 다수의 포트홀이 발견됐는데,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복구를 해도 어느새 또 구멍이 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

자는 "도로 노후화와 기상 현상 등으로 올해 유독 다수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총 88억8천만원을 들여 훼손이 심각한 도로면부터 포장을 다시 하는 등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구간과 복구 위치를 공간정보시스템에 기록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한다"며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장은정기자



"지구는 일회용이 아니잖아요" 지구의 날(22일)을 이틀 앞둔 지난 20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 차없는 거리에서 '2024 지구의 날'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관련 단체 등 시민들이 지구본에 씌워진 쓰레기를 걷어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행인 폭행·출동 경찰에 흥기 휘두른 50대 구속

광주도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흥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구가 구속됐다. 21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26분께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 중 이를 말리는 다른 행인 B(40대)씨를 폭행한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맞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후 A씨의 자택에 출동해 폭행 경위를 파

악했다. 하지만 A씨는 돌연 집 내부에서 톱을 가지고 나와 이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두 명은 이마를, 한 명은 손가락 일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 1명이 공포탄 2발과 실탄 2발을 위협용으로 쏘았음에도 A씨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고 이후 실탄 1발을 하체에 겨냥해 추가 발포했지만 빗맞았다. 결국 다른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발사한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성학기자

대낮 카페 승용차 돌진...8명 중·경상

대낮에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해 8명 이 중·경상을 입었다. 21일 광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2시5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카페에 A(65)씨가 몰던 그랜저 차량이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카페 전면 유리를 부순 뒤 가게 내부로 진입, 손님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등을 덮쳤다. 이 사고로 카페 운영자와 내부에 있던 손님 등 총 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3명은 크게 다쳤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장은정기자

5·18 부상자회 정기총회 '또' 무산...집행부 못꾸러

지난달 2일 이어 20일에도 '정족수 미달'...내달 4일로 연기

회장 등이 공석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의 신규 집행부를 꾸리기 위한 정기총회가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44주년 5·18 기념행사 등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오월 공법 3단계에 대한 위상 및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짙어지고 있다. 21일 부상자회에 따르면 전날 정기총회를 열어 신규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 15명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날 기준 부상자회 선거 유권자는 중앙총회 구성원 166명 중 정계 대상자 1명을 제외한 165명으로, 이 중 84명이

상이 투표를 해야 효력이 있으나 14명만 참여했다. 때문에 부상자회는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7일간 선출 공고를 다시 올린 후 다음 달 4일 정기총회를 개최, 선거를 치를 계획이다. 앞서 부상자회는 지난달 2일에도 정기총회를 열어 공석인 회장 등을 선출하려 했으나, 당시 유권자 156명 중 78명이 불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 무렵 부상자회 SNS 채팅방에는 선거 저지 목적으로 투표 당일 전복 완주 일대로 워크숍을 떠나자는 공지가 올라왔고 실제 다수의 유권자가 참여했는데, 전날 정기총회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성학기자

올해만 정기총회가 두 차례 무산되면서 부상자회는 22일 이사회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총회 두 차례 모두 불참한 유권자의 경우 재선출하는 안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회 관계자는 "이런 시일 내 공식인 회장과 집행부를 선출해 단체 정상화에 힘쓰겠다"며 "더불어 고의적으로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있는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 한 관계자는 "오월 공법 단체들의 내홍이 하루이틀이 아니다. 공법 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제 역할을 다해야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지만원,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 해야"

법원, 북한군 개입 주장 도서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 인정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쓴 지만원(82)씨에 대해 5·18단체 등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5·18기념재단과 오월 공법 3단계(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 등 11명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씨에 대해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

령했다. 또 지씨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씨는 2020년 6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발간했다. 이에 5·18기념재단 등은 해당 도서를

대상으로 '발행 및 배포금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인용됐다. 재판부는 추가로 지씨의 왜곡 서적 출판으로 5·18 단체와 희생자들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봤다며 1억8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말에 제기됐지만, 지씨의 소송이 승소·기피신청과 대법원 항고 등이 이어지면서 3년여만에 선고가 됐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별도 기소된 지씨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안재영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